

기획특집 2. 현장에서 선 여성연구자

지역연구자는 항상 현장을 찾는다. 역사·정치·경제 분야의 거시적인 분석이 가지는 고유의 강점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일상의 맥락이 결여된 논의는 자칫 푸른 생명이 자취를 감춘 회색 이론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체성이란 그 무엇으로든 추상화되지 않으며, 전체성의 여백에서 별이는 생명의 춤과도 같은 것이다. 또 카리브 해 바닷물을 한 움큼 떠올리는 순간 손가락사이로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에메랄드빛 같은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결코 포착할 수 없는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숨결을 그 흔적이거나 재현하려는 시도로 《트랜스라틴》은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한 여성 지리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의 글을 연재한다. 여기서 여성연구자로 한정된 것은 라틴아메리카 여성이 받는 다층적인 억압에 좀 더 민감한 안테나를 세워보려는 시도이다. [서라연]

■ 내 친구 프레디를 찾아서

임 수 진

“몬타냐, 몬타냐아아~”. 프레디였다. 강하게 쏟아지는 달빛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프레디가 나를 불렀다. 주섬 주섬 옷을 껴입고 나가보니, 프레디가 아내 안토니아와 같이 꿀한통을 들고 서 있다. 며칠 전, 산꼭대기 죽은 나무에 몇 년째 터잡고 살던 벌통을 판다고 한바탕 난리를 피웠었는데, 그 꿀을 들고 이 밤에 나를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내일 떠난단다. 떠나기



1999년 지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늘 ‘라틴아메리카라는 지역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 혹은 ‘무엇을 통해 라틴아메리카라는 지역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고민해오다 커피라는 작물을 선택했고, 2001년 가을 코스타리카로 날아갔다. 이 글은 2001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논문자료를 수집을 위해 현지조사 형식으로 코스타리카 각 지역 커피밭에서 일당노동자로 체류하며 경험했던 생활의 일부에 관한 것이다.

이 글에 나오는 ‘프레디’와 ‘안토니아’를 비롯한 모든 인물들은 실존 인물이며, 타라수(Tarrazu)를 비롯한 모든 지명 또한 코스타리카에 실재한다. 그리고 ‘몬타냐’는 코스타리카에 살 때 엉겁결에 붙여진 내 이름이다.

전에, 며칠 째 잔기침을 하는 나에게 그 꼴을 반절이나 따라주고 가려고 한단다.

이게 무슨 똥판지같은 소린지... 아니, 아직도 커피 수확이 다 끝나려면 한 달도 더 남았는데, 갑자기 어디로 간다는 것인지...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도 못하고 있는데, 산호세(코스타리카의 수도)에 나가 사촌 형 집에 며칠 있다가 자기 고향 니카라과로 돌아가 프리홀(코스타리카나 니카라과에서 쌀과 함께 주식으로 먹는 돈부콩의 일종) 수확을 마치고 '저쪽'으로 넘어갈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산호세에 있는 사촌형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쪽지를 꼬깃꼬깃 접어 내게 건네주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같이 킬킬킬 거리며 커피를 따고, 돌아오는 길에 야생 토란을 캐 저녁까지 같이 끓여 먹었는데, 이 밤중에 갑자기 떠난다는 것이었다.



2003년 1월 코스타리카 타라수. 커피밭 노동자들이 머물던 숙소 앞에서 프레디와 안토니아.

처음에 커피밭에 일당 노동자로 들어갔을 때, ‘논문을 쓰기 위해 당신들의 삶을 보러 왔소’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파나마 건설 일용노동자로 건너오는 바람에 파나마에서 태어난, 지지리도 가난해서 인생 막장이라는 이곳 커피밭까지 흘러들어 온 중국인 후손이라 속였다. 그럼에도, 완전 동양인인 내가 동양인이라곤 생전 구경도 못해보았을 그들의 삶에 쉽게 녹아들 수는 없었다. 그러나 프레디는 조금 달랐다. 처음 만나는 순간 아주 당당하

게 자기소개를 하고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얼떨결에 커피 진이 잔뜩 묻은 그의 손을 잡게 되었고, 그 이후로 프레디와 프레디의 아내는 늘 나를 챙겼다. 손이 그들만큼 여물지 못해, 늘 불량노동자일 수밖에 없었던 내가 혹시라도 농장에서 쫓겨날까봐 하루 수확량을 쟀 때면 그들에게 곧 돈인 커피를 내 바구니에 슬그머니 떨어주기도 했고, 아무리 험한 음식이라도 꼭 내 몫을 챙겨줬다.

달이 너무도 밝았던 그 날 밤, 프레디와 안토니아는 그렇게 떠나갔다. 프레디가 비닐 쌀자루에 그 동안 썼던 살림도구를 담아지고, 안토니아는 며칠 전부터 사 놓았던 아들과 딸에게 줄 검정 비닐구두 두 켤레를 소중히 안고 그렇게 떠나갔다. 그 밤에 난 프레디에게 행운의 상징으로 미국 성조기가 조잡하게 그려진 볼펜 한 자루를 줬고, 안토니아에게는 내가 입고 있던 스웨터를 벗어줬다. 프레디가 며칠 전 목숨 걸고 벌통에서 거른 꿀은 받을 수가 없었다.

프레디와 안토니아가 떠나간 커피밭에서 난 한 달 정도 더 머물다 그 해 커피 수확기를 마치고 산호세로 돌아왔다. 산호세에서 다시 바쁜 일상이 이어졌지만, 몇 번 프레디와 안토니아 생각을 했다.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자로서가 아니라(물론, 그들은 몰랐겠지만),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좋은 식당에 프레디 부부를 꼭 한 번 초대하고 싶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항상 마음과 음식을 나눠줬던 내 친구들에게 그렇게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혹시나 싶어, 프레디가 떠나던 날 밤 내게 준 프레디의 사촌형 전화번호로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보았지만 사촌형은 프레디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마도 사촌형에게 들르지 않고, 니카라과 고향으로 바로 돌아간 것일까? 고향에 남겨 두고 온 여섯 살짜리, 그리고 일곱 살짜리 남매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날을 생각하다, 난 직접 프레디를 찾기로 했다.

니카라과 보아코 주 산타루시아 마을. 이 세 단어가 내가 알고 있는 프레디 고향마을에 대한 정보의 전부였다. 프레디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 무렵이 되면, 늘 내게 자기 고향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 두고 온 어린 남매, 4년 째 짓고 있는 집, 90살이 넘는 할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은 늘 산타루시아에서 프레디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호언장담과 나를 고향에 꼭 초대하고 싶다는 소망까지. 이것이 프레디를 통해 내가 얻은 그의 고향에 대한 정보의 전부였지만, 프레디가 미국으로 떠나가기 전에 꼭 프레디 부부를 다시 봐야 할 것 같아 그 해 4월 니카라과 행 버스를 탔다.

니카라과에 도착한 지 삼일 째 되던 날, 마나과 외곽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보아코 산타루시아로 가는 버스를 찾을 수 있었다. 프레디가 말하던 그 마을, 산타루시아가 정말 있구나하는 신기함

과 반가움에 버스가 터미널에 닿기도 전에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가 버스에 올랐다. 물론 버스에 올라타면서 너무도 당연하게 버스기사한테 프레디를 아느냐 물었는데, 기사는 프레디를 모른다고 했다. 산타루시아에서 프레디 모르면 간첩이라 했는데... 내 얼굴에 실망의 기색이 너무 역력했는지, 오히려 기사는 사람들이 많이 타면 그 때 물어보라며 나를 위로해준다.

버스는 서너 시간 포장도로를 달린 후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다. 버스는 중간 중간 사람을 태우고 내렸는데 그 때마다 수 십명의 아이들이 비닐봉지에 담아 열린 물이나 집에서 깎은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과일들을 들고 하나라도 더 팔려 애를 썼다. 버스는 비포장 길을 한참을 달린다. 언제 이 길이 끝날지 모르는 채 그저 막연함에 창밖을 보는데, 먼지가 자욱한 길옆으로는 차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집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다. 차가 귀해서인지, 버스가 지나가니 집집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버스를 물끄러미 본다. 아마 이 사람들도 시계 대신 버스를 보고 하루 시간을 계산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멀리 지나가는 기차를 보고 때를 가늠했듯이.

네 시간 넘게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 중에 프레디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객지에 나온 한 외국인 불법노동자가 과장한 말을 끝이끝대로 믿었던 것이다. 버스가 산타루시아에 들어가면서 기사와 조수는 더욱 바쁘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내밀고 프레디를 아느냐 묻는다. 터미널 마당을 가로질러 버스에 오를 때의 벅찬 희망이 버스 여행 네 시간 만에 산타루시아가 정말 프레디의 고향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회의로 변했다. 그때 갑자기 버스 조수가 나더러 지붕에 올린 짐을 챙기라고 하면서 어느 집을 가리킨다. 그 집으로 들어가 보란다. 영문도 모르고 짐을 내려 그 집으로 들어갔다.



2003년 4월, 니카라과 보아코 산타 루시아 마을에서 돈 레이놀드(프레디의 할아버지)

굴 속 같은 집인데, 집 한가운데 놓인 흔들의자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계셨다. 내가 이 집에 왜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안이 빙빙한데, 할아버지 또한 이 동양인이 도대체 왜 당신 집에 들어왔는지 궁금하고 놀란 기색이다. 서로가 어색하게 그리고 있는데, 버스 지붕에서 짐을 내리고 실어주던 조수가 집 안으로 들어와 이 노인이 프레디를 알 것이라 한다. 프레디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 노인은 바로 자기가 프레디 친할아버지라고 말했다.

네 시간 동안 버스에 실려 오면서 내내 프레디를 의심했는데, 한 순간에 내가 프레디의 할아버지 집에 들어서는데 기가 막힌 순간이었다. 프레디가 늘 내게 말해주던 90살이 넘는 할아버지를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프레디가 정말 산타루시아에 살긴 사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 안도감도 잠시, 설마 했는데, 프레디 부부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한 달 전에 고향에 돌아간다고 타라수 커피밭에서(Tarrazu,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서 남서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다. 코스타리카 주요 커피 생산 지역 중 하나이며, 그 곳에서 프레디와 안토니아를 만났다.) 헤어졌던 프레디는 무슨 영문인지 아직도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막막함이 밀려왔다. 당장 오늘 어디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지가 큰 문제였다. 마을에는 여관도 식당도 없었다. 프레디 할아버지 집도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다행히 마을에

민박 비슷한 곳이 있다 하여 그 집을 찾아갔는데, 도저히 머무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난색을 표하자 그 옆집을 다시 소개시켜줬는데, 그 집 또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기에 그냥 그 집에 머물기로 했다. 이미 마나과로 가는 차는 끊어진 상태였다.

숙소에 짐을 풀었다. 방 사용료는 음식을 포함하여 하루에 미화 2달러. 창고인지 방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방은 완전 깡통집으로, 들어가기가 겁 날 만큼 덥다. 기다란 방에는 가구 하나 없이, 여기저기 스프링이 빠져나온 침대 하나만 덜렁 놓여 있었다. 대충 씻고 대충 먹고 나서 다시 프레디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다. 무엇보다도 프레디 집을 찾아야 했다. 할아버지한테 물으니 프레디 집은 여기서 또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곳이란단다. 할아버지는 전화가 없어 소식을 전할 수 없으니, 혹시라도 그 사이 프레디가 고향집에 돌아와 있을지도 모른다면 나를 위로해주셨다. 다시 조그만 희망이 생긴다.

마을에 한 대 밖에 없는 택시를 불렀다. 내 나이만큼이나 나이를 먹었을 것 같은 차, 운전석 아래로 구멍이 숭숭 보이고, 내가 앉아 가는 조수석 바닥은 아예 한 부분이 없다. 출발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프레디의 집 위치를 택시 기사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었는데도 한참을 헤맸다. 마을 아래 가게에서 있는 대로 과자를 샀다. 프레디와 안토니아가 늘 눈물로 보고 싶어 하던, 니카라과에 남겨진 프레디 부부의 두 아이를 위해.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묻던 차에, 저 멀리 낮 익은 집이 보였다. 프레디 부부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가족사진, 짓다만 집을 배경으로 프레디가 두 명의 아이를 한꺼번에 양 팔에 안고 찍은 사진. 매일 밤 안토니아의 눈물을 자아냈던 그 사진 속에 나오던 집이었다. 프레디의 집이었다.

택시가 마을로 올라가 멈추니까 많은 사람들이 택시 주변으로 모였는데, 그들 사이에 프레디와 안토니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도 드디어 프레디와 안토니아를 만나는구나 하는 마음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차에서 내려 프레디와 안토니아를 부르니, 옆집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다. 안토니아의 친정집이란다. 안토니아의 부모님은 많이 놀란 듯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양인이라고는 처음 볼 터인데, 코스타리카에 간 자기 딸 이름을 대고 불쑥 찾아왔으니...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안토니아의 엄마는 나를 잡고 많이 우셨다. 프레디와 안토니아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거의 8개월 간 소식이 없다고 했다.

프레디의 아이들은 아랫마을 외삼촌 집에 있다고 했다. 아이들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안토니아 부모님과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다시 택시를 돌려 아랫마을로 내려왔다. 아이들이 있었다. 항상 프레디의 딱 한 장뿐인 가족사진을 통해 본 그 아이들이 초라하게 살고 있었다. 코스타리카에서 안토니아와 헤어지기 얼마 전에 그녀는 남매에게 80달러를 송금했다. 사실 송금회사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무려 원금의 20%나 냈다. 80달러면 이곳에서 정말 큰돈인데, 그 돈은 어디로 간 것인지 아이들의 행색은 초라했다. 방도 없는 외삼촌 집에 얹혀살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과자를 내밀었다. 나도 어리둥절했고, 아이들도 어리둥절했다. 무슨 말인가 해야겠는데, 도무지 말을 할 수가 없다. 겨우 입을 열고 “너희들 엄마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다. 모두가 너무 불쌍했다. 기약 없이 코스타리카로 돈 벌러 간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친척집에 얹혀살고 있는 아이들이 불쌍했고, 아이들을 떼어 놓고 코스타리카에서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프레디와 안토니아가 불쌍했고, 가족들이 다 떠나가고 90이 되어 혼자 남은 프레디의 할

아버지가 불쌍했고, 그제 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 바라는 안토니아의 부모님이 불쌍했고, 그리고 너무 힘들게 친구를 찾아왔는데, 친구는 없고 그 친구의 어린 자녀 앞에 서 있는 내가 불쌍했다. 서글펐다. 그래서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아이들에게 내일 중에라도 내가 묵고 있는 숙소에 한 번 꼭 들르라는 말을 하고 돌아섰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 내 자신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꼭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았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길을 되돌아오는데, 모든 것이 다 황토색이다. 절망스러울 만큼 척박함이 묻어난다. 숙소로 돌아와서 서둘러 샤워를 했다. 오후 다섯 시면 물이 끊어진다고 했다. 건기의 막바지였다. 해가 저도 날은 여전히 더웠다. 늦도록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모기였다.

밤 내내 모기와 더위에 지쳐 있다가 새벽녘에서야 잠이 들었는가 보다. 눈을 떠 보니 해는 이미 중천에 떴고 시계를 보니 오전 9시다. 온 몸이 간밤의 더위에 폭 젖어 있었다. 씻으려고 나가는데 숙소 주인아줌마가 부른다. 손님이 찾아왔다고 했다. 안채로 들어가 보니 어제 만난 프레디의 아이들이 와 있었다. 아침 7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진즉 깨우지...’ 대충 씻고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의 모습은 어제 보다 한결 좋아 보였다.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온 듯하다. 남자 아이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 아이는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엄마가 코스타리카에서 보내 준 옷이라 했다. 아이들은 제 사촌 누나와 같이 와 있었다. 새벽 깜깜 할 때 집을 출발하여 한 시간 넘게 걷고 걸어서 이곳에 도착했다고 했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이라 할 만한 곳을 찾아갔는데, 음식이

전혀 없단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먹고 싶냐 물으니, 둘 다 콜라가 먹고 싶단다. 두 아이들에게 콜라를 한 병씩 시켜주었다. 아이들을 오라 했지만, 그저 아이들이 콜라 마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다. 아이들의 사춘누이와 주로 이야기를 했다. 프레디의 아들은 단숨에 콜라 한 병을 다 비웠다. 한 병 더 먹겠냐 하니, 더 먹겠단다. 두 번째 병 역시 3분도 되지 않아 다 비웠다. 새벽부터 먼지 풀풀 뒤집어쓰고 십여 리를 걸어온 아이들에게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너희 부모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 말해 준 것과 콜라를 실컷 먹게 해 준 일,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과자를 잔뜩 사줄 수 있는 것뿐이었다. 헤어지면서 아이들의 사춘 누이는 프레디가 최근에 전화를 했으며, 코스타리카 전화번호를 하나 건네주었다.

프레디가 없는 산타루시아 마을에서 난 열흘을 머물렀다. 오늘이나 혹은 내일이라도 하루에 두 번 마나과에서 들어오는 버스에서 프레디 부부가 내릴 것 같다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매일 차가 들어오는 시간에는 먼지 자욱한 마을 어귀를 서성거렸다. 처음 산타루시아 마을로 들어오던 때, 먼지 풀풀 날리며 지나가는 버스를 사람들이 한 참이나 멍 하니 바라보더니, 그냥 그 때는 버스가 워낙 자주 다니지 않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마 그 사람들도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간절하게 코스타리카로 커피 따러 간 가족을 기다렸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흘 동안 매일 매일 프레디를 기다렸지만, 프레디는 오지 않았고, 난 열흘 째 되던 날 짐을 꾸렸다. 그 곳의 생활이 너무 무료했고, 지긋지긋한 무력감과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너무도 열악한 숙소를 견딜 수가 없었다. 산타루시아에서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과로 나가는 버스는 새벽 세 시와 네 시, 하루에 딱 두 번이다. 새벽에 혼자 조용히 일어나 어제 받아

놓은 물로 세수를 했다. 짐이랄 것도 없는 짐을 싣다. 집 주인인 도나 루신다가 나온다. 그녀 또한 간 밤 잠을 설쳤다고 했다. 끝내 프레디를 만나지 못하고 가는 나를 위로해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들었는가보다. 서로의 눈에 눈물이 그렇거렸다.

마침 일요일 새벽이라 그런지, 마나과로 나가는 사람이 제법 많다. 버스 안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닭도 있고 염소도 있다. 버스는 그 새벽에 전장에 나가는 장군처럼 경적을 울리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버스가 프레디 할아버지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어두운 길에서 프레디 할아버지 돈 레이놀드가 나를 찾는 지 버스 안을 기웃거렸다. 버스 안쪽에 있던 나는 벌떡 일어나 프레디의 할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저 노인을 내가 앞으로 다시 볼 수 있으려나. 내가 이곳을 다시 올 수 있으려나.” 그동안 이 산타루시아가 지긋지긋 했는데, 막상 떠나려니 모든 것이 서운하다.

프레디 부부를 만나지 못한 서운함이 때문일까, 코스타리카로 돌아오는 길에 땡기열병을 얻었다. 땡기열병의 여파가 너무 커, 코스타리카로 돌아온 후에도 당분간 프레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고, 코스타리카에서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귀국이 가까워지면서 논문 자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챙기고 해결해야 했지만, 그보다도 꼭 프레디 부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반신반의하며, 산타루시아에서 만난 프레디의 조카가 건네 준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다. 일단 받아오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코스타리카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 시스템이 아니었다. 지역번호도 없었고, 번호 자릿수도 코스타리카 전화번호가 아닌 것 같았다. 몇 번에 걸쳐 시도를 해 봤지만, 없는 번호인 듯 신호가 가다가 중간에 끊겨 버리길 반복했다.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어 기회

가 되는 대로 그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늘 신호가 가다 중간에 끊기던 전화에서 상대방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일단 그 곳이 어디인지 먼저 물었다. 푼타레나스(Puntarenas, 코스타리카 태평양 연안에 좁고 남북으로 길게 위치한 주로, 주도는 동명의 푼타레나스이다) 근처 팔렌케(Palenque)라는 곳이라 했다. 전화번호에 대해 자초지종을 물으니, 동네 전체에 전화가 한 대도 없어 국가에서 놔준 공중전화라 했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 전화를 받은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혹시 프레디를 아느냐고 물었다. 감사하게도 그 사람은 니카라과에서 온 프레디를 알고 있었다. 지금은 가까이 없지만, 프레디가 내려오거든 전해주겠다고 했다. 내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 두었다. 프레디와 직접 통화하지는 못했어도, 마치 프레디를 찾은 것처럼 반가웠다.

그로부터 이틀 후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다. 프레디의 아내 안토니아였다. 전화가 있는 아랫마을에 내려왔다가, 동네사람을 통해 내 연락처를 받았다고 했다. 믿기지가 않았다. 다시 안토니아와 연결이 되다니, 나도 기뻐지만, 안토니아도 많이 흥분한 것 같았다. 일단 안토니아를 진정시키고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내가 그 곳으로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안토니아가 내게 알려준 팔렌케라는 곳은 코스타리카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다. 안토니아는 일단 푼타레나스까지 와서 다시 그곳 사람들에게 물으면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했고, 나는 토요일 오후 12시까지 안토니아가 말해 준 팔렌케 마을의 학교 앞 공중전화 부스에 도착하기로 약속을 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음에도, 푼타레나스에 도착하고 보니 이미 오후 두 시를 넘기고 있었다. 안토니아와 약속했던 12시를 넘기면서 마음이 급해졌지만, 어쩔 수 없



2003년 7월 코스타리카 푼타레나스 팔렌케 마을,
프레디 부부의 집에서 필자와 함께

는 일이었다. 일단 푼타레나스에 도착해서 프레디가 기다리고 있을 공중전화 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난감했지만, 일단 푼타레나스 식료품점에 들러 닥치는 대로 식품을 샀다. 기름, 설탕, 잼, 주스가루, 코카콜라, 닭, 그리고 신선한 식빵. 무엇보다

도 프레디 부부에게 부드럽고 신선한 식빵을 사주고 싶었다.

푼타레나스에서 묻고 물어 안토니아가 알려준 팔렌케 마을을 향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팜 농장을 지나기도 하고, 사탕수수밭을 지나기도 하더니, 드디어 차가 도저히 올라 갈 수 없을 것 같은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중간에 차를 돌릴까 몇 번 망설이다가도 꾸역꾸역 올라갔더니, 전혀 동네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 작은 동네가 있었고, 멀리 학교가 보였다. 차가 마을에 들어서서는 것을 보고 저 멀리서 누군가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데, 직감적으로 프레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레디다. 거의 5개월 만에 보는 프레디다. 프레디가 나를 보고 아무 말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나도 무어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악수를 했다. 아침부터 그 시간까지 꼼짝 않고, 그 곳에서 나를 기다렸다고 했다. 같이 동행해준 친구에게 프레디를 소개했다. 프레디의 집은 그 곳에서도 또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 했다. 같이 간 친구가 프레디에게 차에 오르라 하자, 프레디는 자신의 옷과 신발이 더럽다면서 극구 사양했다. 여러 차례 권유 끝에 프레디가 차에 올랐는데, 그

때부터 많은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며칠 전 내가 전화했을 때, 그 날 꿈에 관한 이야기였다. 프레디의 꿈에 나를 닮은 사람이 나왔단다. 그 사람이 프레디에게 묻기를 몬타냐를 아느냐기에 프레디가 소리 쳤단다. 몬타냐는 내 친구라고, 내가 몬타냐를 다시 보기 전에는 절대 이곳 코스타리카를 떠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내 전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프레디의 집은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말이나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에 진흙인지라 차를 끌고 들어가다 중간에 차를 버려야 했다. 지금이야 차를 두고 가지만, 은근히 나중에 다시 차를 돌려 나갈 일이 걱정이다. 차에서 내려 프레디를 따라 집으로 올라가는데, 주변에 집이라고는 한 채도 없고 길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몇 번을 꼬꾸라지고 넘어질 뻔했다.



페히바예(pejibaye). 팜 종류의 야생열매 일종으로 달콤한 맛 때문에 주로 삶아서 먹는다.

프레디는 아내 안토니아와 함께 버려진 외딴 집에서 살고 있었다. 말 몇 마리가 전부인 농장을 돌봐주고 있는 중이라 했다. 전기도 수도도 없는 집이었다. 마당은 연일 내리는 비로 엉망진창이었고, 화장실조차 없었다. 안토니아는 우리를 위해 페히바예를 삶고 있었다. 페히바예를 보

니, 코스타리카 커피밭에 있을 때 니카라과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하도 페히바예를 따먹으니까, 마을사람들이 니카라과 사람들을 쥐라고 불렀던 기억이 났다. 안토니아는 아랫마을에서 얻어온 것이라 했지만, 나 혼자 그 때 생각이 나 괜히 슬퍼졌다. 안토니아는 부엌도 따로 없이 진흙바닥 마당에 얼기설기 솔을 걸고 커피

를 끓여 냈다. 그리고 니카라과에 돌아갈 때 가져갈 요량으로 그동안 사 모은 유리컵을 조심스레 꺼내 커피를 담아 주었다.

프레디와 안토니아를 만나자마자, 지난 4월에 니카라과에 갔을 때 찍은 아이들 사진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프레디의 할아버지와 안토니아의 친정 식구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내가 그들의 고향까지 찾아갔던 것에 대해 많이 고마워했고 그리고 미안해했다. 안토니아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아이들 옷이 왜 이리 초라하냐며 많이 속상해했다. 그리고 내가 고기를 사주지 못하고 코카콜라만 사줬다는 말에 내심 안타까워했다. 그것이 엄마 마음인가보다.

프레디는 8월 말 미국으로 밀입국할 것이라고 했다. 미화 5000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 미리 들어간 형이 일부를 빌려줬지만, 어떻게 해서든 나머지 부분을 8월 말까지 마련해야 하기에 아직까지 고향에도 못 돌아간 채 코스타리카에 남게 되었다고 했다. 새벽에 이슬 맞고 올라가 밤에 이슬이 내리기까지 커피를 따도 하루에 겨우 5불을 벌 수 있는데, 프레디에게 그 5000불이란 돈은 그냥 5000불이 아니었다. 얼마나 큰 모험일까. 프레디는 그 말을 하면서도 상당히 불안해했고, 내가 전해 준 아이들 사진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다.

해가 지려고 하는데, 프레디 집에서 좀 더 머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이불은 고사하고, 비를 피해 잠을 청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여의치 못했다. 프레디의 집을 나올 때쯤 어둑어둑한 가운데,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올라오다 차를 버려두고 왔으니, 날이 조금이라도 더 밝을 때 내려가서 차를 돌려야 했다. 차를 돌린 후, 모두가 진흙 범벅이 되었다. 그렇게 진흙 범벅인 채, 프레디 부부와 아쉬운 작별을 했다. 한참을 부부는 빗속에 망부석처럼 선 채,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렇게, 다섯 달 넘게 찾던 프레디 부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2년 전에 코스타리카에 처음 도착하던 날, 공항에 내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막막했던 기억에서부터, 이곳저곳 커피밭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1달러도 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살던 시절, 그리고 그 커피밭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갔다. 산호세로 돌아오는 내내, 프레디가 미국으로 잘 들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안토니아가 니카라과로 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코스타리카 폰타레나스 팔렌케 마을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헤어진 프레디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다시 약 5개월이 지난 후였다. 난 코스타리카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있었고, 논문 때문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 정말 반갑고 고마운 전화였다. 미국에 무사히 잘 들어갔고,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있다고 했다. 내 안부를 묻고 난 후 첫마디가, 코스타리카 커피밭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커피를 따도 하루에 4볼 벌기가 힘들었는데, 마이애미에서는 한 시간에 8볼을 번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자랑을 했다.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아직 전화가 없이라며, 다음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프레디가 무사히 미국에 들어갔음에 감사했다.

그 후, 때때로 미국에 있는 프레디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빵집에서 일을 한다고 하기도 했고, 페인트칠하는 일을 한다고 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프레디에게 전화가 생겨, 나도 몇 번인가 프레디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다. 프레디보다 훨씬 일찍 미국으로 들어간 프레디의 엄마와 형, 그리고 누이동생과 전화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몇 달 후에는 미국에 들어오면서 형에게 졌던 빚도 다 갚았다며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하루라도 빨리 더 돈을

벌어 니카라과에 남겨진 안토니아와 자식들을 데려오고 싶다고도 했다. 내게 전화할 때마다 프레디는 코스타리카 커피밭에서 니카라과 자기 고향을 두고 늘 그러했듯이, 내가 마이애미에 온다면 정말 좋겠다고 그랬다. 마이애미 인터내셔널에어포트 바로 옆 동네에 산다며, 내가 마이애미에 온다면, 쏜살같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겠노라고 했다.

그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프레디 편에 니카라과에 있는 안토니아와 아이들 소식도 들을 수 있었는데, 2005년 말부터 다시 프레디와의 연락이 끊어져버렸다. 프레디와 늘 통화하던 변호가 어느 날부터 결번이라 했다. 혹시 요금을 못 내 그러는가 싶어,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다시 시도해도 늘 결번이라 했다. 걱정이 되어 프레디의 고향집을 지키는 안토니아와 프레디의 할아버지 돈 레이놀드에게도 여러 번 편지를 보냈지만 그들에게서도 답신이 없었다. 그렇게 다시 프레디와 연락이 끊겨버렸다.

2006년 4월 나는 프레디가 내게 늘 자랑하던, 프레디의 집 바로 옆에 있다던, 그 마이애미 인터내셔널에어포트를 방문하였다. 내가 가면 쏜살같이 달려오겠다던 프레디가 없을 줄 뻔히 알았지만, 그래도 늘 내게 자랑하던 그 공항을 가보고 싶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 공항 근처에 프레디가 살만한 마을이 있는지도 보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프레디가 목숨 걸고 들어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느끼고 싶었다.

미국이란 곳이 니카라과처럼 혹은 코스타리카처럼 누군가에게 물어가며 찾아갈 만한 곳이 아니기에, 누군가에게 물어가며 사람을 찾을 만한 곳이 아니기에, 난 당연히 그 곳에서 프레디를 만나지 못했다. 코스타리카 커피밭에서 처음 프레디를 봤을 때 나보다 한 열 살 정도는 더 먹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와 동갑인 내 친구 프레디. 니카라과 보아코 산타루시아 마을

에서 태어났고, 같은 마을 처녀 안토니아와 맺어져 연년생으로 아이를 둘 낳았고, 매년 커피 수확철이면 이웃 나라 코스타리카로 밀입국 하여 새벽이슬이 걷히기도 전에 온 몸을 적셔가며 커피밭으로 올라가 하루 종일 커피를 따고, 커피밭에서 번 돈으로 니카라과에 돌아가 그 해 벌어들인 돈만큼씩 집을 짓고, 2003년 아직도 미완성인 집을 남겨둔 채, 두 아이와 아내를 남겨둔 채, 평생을 살아도 만져보지 못할 미화 5천불이라는 빚을 얻어 목숨 걸고 미국으로 들어갔고, 꿈의 땅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빵집으로 공사장으로 돌아다니며 조금씩 그 꿈을 실현해가던 내 친구 프레디.

언젠가 내 친구 프레디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는 프레디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이, 친구 프레디. 내가 너 찾아서 마이애미 인터내셔널에어포트까지 갔다 온 것 알아?’ 내가 살아있고, 프레디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다시 만날 것이라 믿는다.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 때는 정말 좋은 식당에서 고급스러운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그리고 늘 그러했듯이, 반쯤은 과장이 섞인 그의 인생 유전기를 듣고 싶다.□